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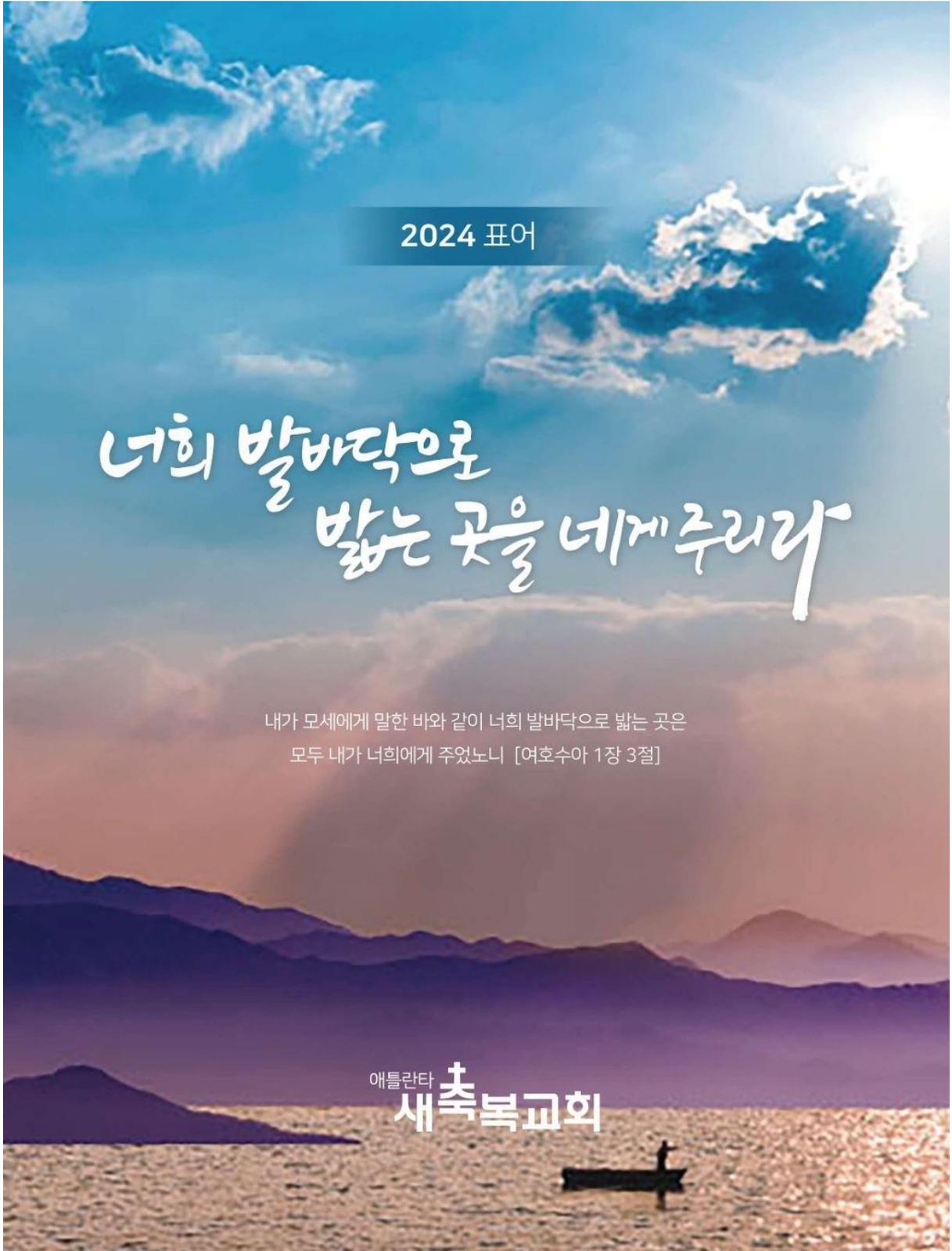
2024년 11월 03일의 소식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초**복교회



2024년 11월 3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한나의 노래 Born Again	Behold
기 도		정성원 형제
성경봉독	사무엘상 1장 1-18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치는 기도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한나의 노래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최동현 목사
축 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11월 생일을 맞은 성도님들 축하합니다!
 - 송미자 (11/6), 송창희 (11/7), 홍정임 (11/21), 이병민 (11/22), 김복희 (11/25),
 - 친교 I 진예찬, 이윤정 부부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 Daylight Saving Time Ends I 오늘 새벽부터 써머타임이 해제됩니다.
 - 새축복 바자회 I
 - 일시: 11월 9일 토요일
 - 도네이션 하고자 원하시는 물품을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바자회 정리: 진열 및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로 함께하실 분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 연합예배 I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
 - 금요일예배 방학 I 11월 22일 / 11월 29일
 - 11월 감사 릴레이 I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3주차에 걸쳐 한해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 별 광고시간 공지)
 - 1주차: 셀원들에게 감사 표현하기
 - 2주차: 나의 인생에서의 감사 나누기
 - 3주차: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기
 - 감사노트 3가지 작성 후 본당 감사보드에 부착하기
 - 결혼을 축하합니다!
 - 11월 23일 (토) Kevin & Maria
 - 11월 23일 (토) 이해천 & 강성경 I 한국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1/03	정성원	IE종아셀
11/10	송윤숙	럽셀
11/17	송강현	예수파셀
11/24	연합예배	연합예배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 새가족 교육 (3주)
- 세례자 교육 (5주)
- 결혼 학교 (4주)
- 통독 훈련 (매년 1번)
-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와 묵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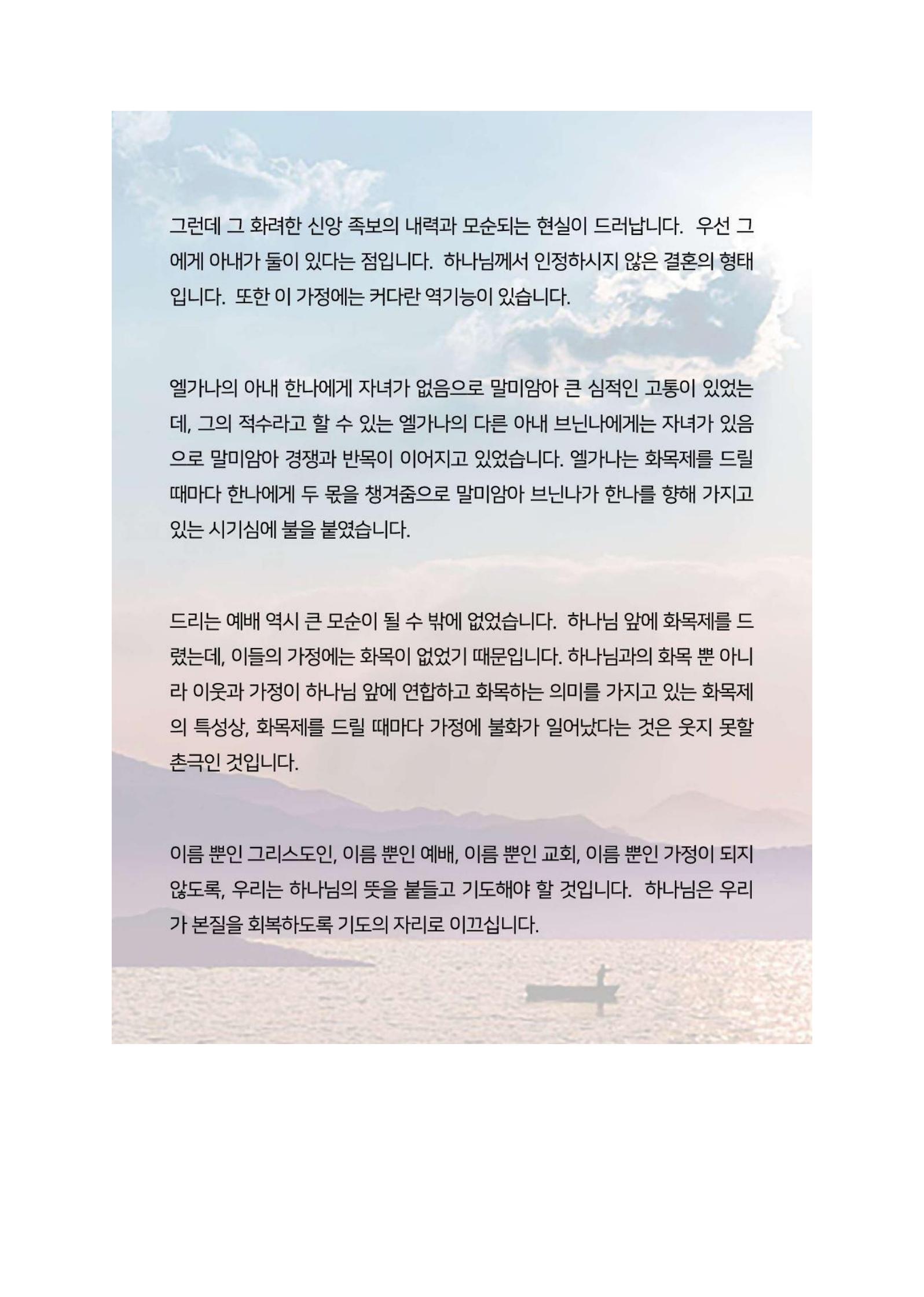
20241103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무엘상 1장 1-18절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치는 기도

첫째,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엘가나” 라는 사람의 가정 족보는 4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버지의 이름만을 가지고 가문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 가문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4-38절을 보면, 그 가문의 역사가 야곱의 아들 레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서 깊은 가정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정은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던 실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 를 드리고 함께 영적인 식탁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신앙 족보의 내력과 모순되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선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결혼의 형태입니다. 또한 이 가정에는 커다란 역기능이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큰 심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그의 적수라고 할 수 있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쟁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한나에게 두 뭇을 챙겨줌으로 말미암아 브닌나가 한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시기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드리는 예배 역시 큰 모순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들의 가정에는 화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뿐 아니라 이웃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화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목제의 특성상,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웃지 못할 촌극인 것입니다.

이름 뿐인 그리스도인, 이름 뿐인 예배, 이름 뿐인 교회, 이름 뿐인 가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해야 할 관계의 영역이 있습니까? 역기능적인 부분은 없는지 나누어 봅시다. 경쟁, 반목, 서먹함, 소통의 단절, 등 가정을 병들게 하는 부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고 기도합시다.

Q. 여러분의 예배가 생기를 잃고 문제 상황에 봉착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던 예배가 죽은 경험이 있나요? 죽었던 예배가 살아났던 경험이 있나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는지 우리의 마음과 태도, 중심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건강함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지각하고 있는 적은 없습니까?

Q.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말씀과 삶의 간격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 시키거나, 불편한 말씀과 거리를 두려하거나, 우리에게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숙제와 도전을 마주칠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도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성숙, 영적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교회의 교회 다움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새축복교회를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한나는 11절에서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이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가장 깊은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개인적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더 깊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소원입니다. 탈 없는 소원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나눔 질문

Q.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자체를 두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제목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구하는 것을 받고자 기도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드리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차원 더 높은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는 아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제사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주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될 때, 진정한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나눔 질문

Q.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어 봅시다.

3) 엘리의 선포를 믿는 한나

한나는 엘리가 제사장으로써 하는 선포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 지라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엘리가 한나를 술취한 여자로 보는 지극히 사소하고 웃지 못할 오해에서 비롯된 대화였지만, 그 대화 끝에 엘리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한나는 그것을 그저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영적권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성령께서 주신 말로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 홀로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오늘 셀 안에서 그 동역의 끈을 만들어 봅시다. 주변에서 기도를 부탁할 만한 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4) 서원대로 이루는 한나

그렇게 하여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고 나서 그 간절함이 해소되고 나면, 첫 마음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문제만 해결된다면, 취업만 해결된다면, 내 인생의 짝을 만난다면, 등등,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소원과 서원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약속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임신하고 잉태된 아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무엘이 자신의 기도응답인 것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을 동여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자신이 한 서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서원대로 이루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칭찬은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해주신 것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서원하고 헌신한 결단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습니다. 응답에만 만족하지 않고, 서원을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제사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이고 성숙한 자의 태도입니다.

나눔 질문

Q. 하나님께 무엇인가 약속하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갚아야 할 약속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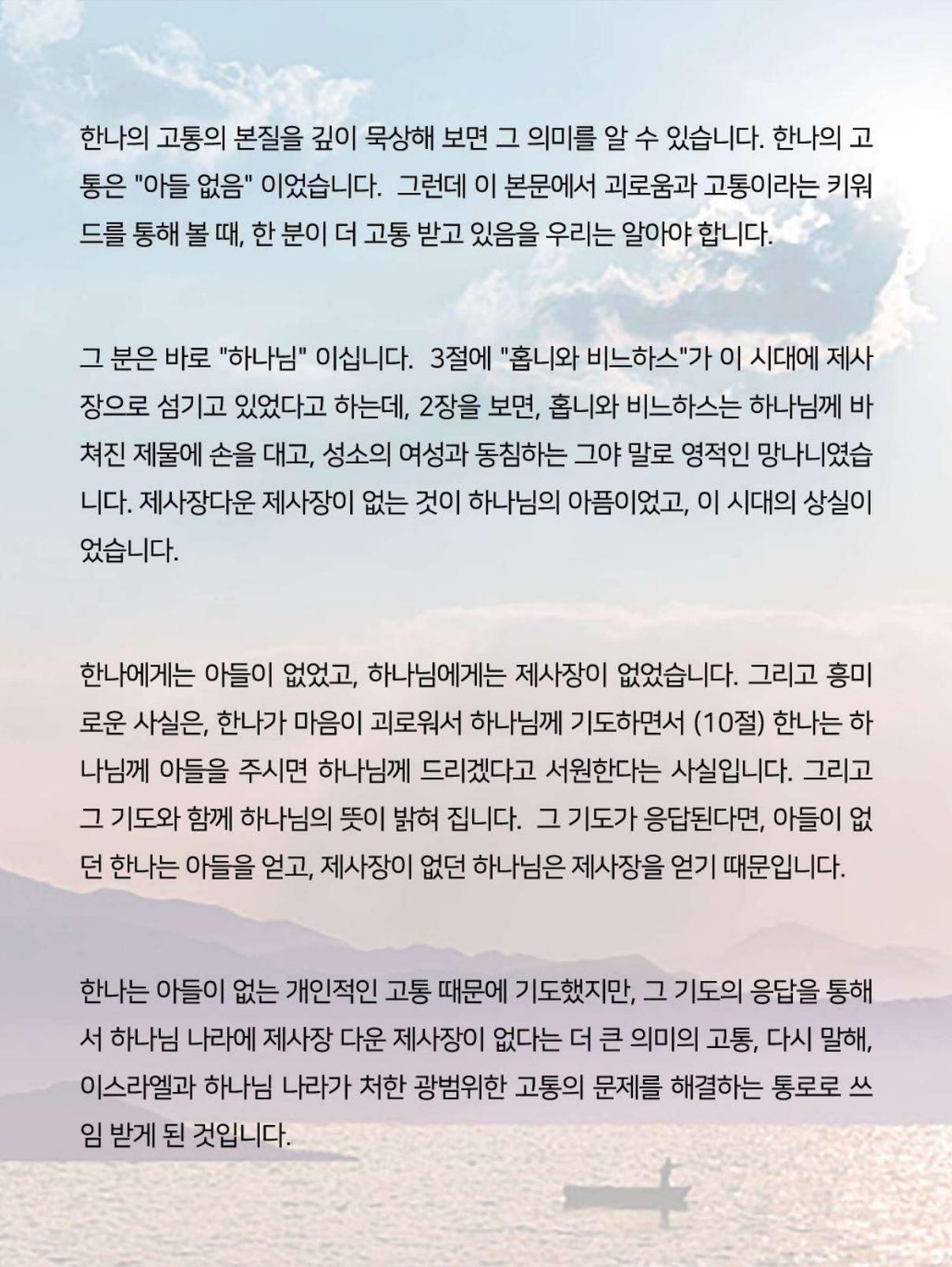
신실한 자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는 창조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삼상 1: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삼상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보아도 더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는 "기도의 사람"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의 임신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이야기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나의 고통의 본질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아들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볼 때, 한 분이 더 고통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3절에 "흡니와 비느하스"가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2장을 보면, 흡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손을 대고, 성소의 여성과 동침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망나니였습니다.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이 시대의 상실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절)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밝혀 집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아들이 없던 한나는 아들을 얻고, 제사장이 없던 하나님은 제사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는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제사장 다운 제사장이 없다는 더 큰 의미의 고통,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가 처한 광범위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개인적인 감정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고통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게 되는 선물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기도하는 자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내는 고통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한 거룩한 창조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한나는 소원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필요도 없이 아들이 주어졌다면,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은 기도 없이도 얻는 아들을 기도해서 어렵게 받은 것이 복인지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열매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구하면서 "제사장이 없어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치는 한나의 모습이 이 기도에서 받은 핵심적 열매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한나의 결단이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주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